

3. 순천 소작쟁의의 전개양상

1) 태동기의 소작쟁의

1922년 12월경부터 순천지역에서 소작인조합운동이 활기를 띤 것은 새로운 사회운동 경향에 자극을 받은 순천지역의 혁신청년들이 각 면의 농민대회를 주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이영민·이창수 등 순천지역의 혁신청년들은 1922년 2월 남선농민회연맹을 결성하고,¹⁾ 순천·여수·광양·보성지역에서 소작농민운동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순천지역의 혁신청년들은 군내 14개 면의 농민들을 선동하여 군중집회 형식의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소작관계 개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1922년 12월 13일 서면 농민 1,600여 명은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8개 항목의 소작관계 개선 요구를 결의한 뒤 이를 군청당국에 진정하였다. 또 쌍암면 농민 1,000여 명도 1922년 12월 20일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5개 조목의 결의를 채택한 뒤 이를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진정하였다.²⁾ 이때 각 면 농민대회가 채택한 결의는 소작료 4할제 실시, 소작권이동 반대, 지세공과금 지주 부담, 공평한 소작료 간평 및 두량 등과 관련된 요구들이었다. 특히 1923년 1월에 접어들면서 각 면 농민대회는 여러 차례 각 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적인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소작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순천군청은 1923년 1월 6일 각 면의 소작인 대표 50여 명을 군청으로 불러들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³⁾ 뒤이어 1923년 1월 21일에는 군내 지주 39명(조선인 지주 30여 명, 일본인 지주 9명)과 각 면 소작인 대표 수십 명, 경찰서장과 군청직원, 면리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순천군 지주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순천지역의 지주들은 순청군청측의 권유에 따라 “소작인의 요구에 승락하되 농사개량에 대해서는 소작인도 지주의 요구에 응함이 좋겠다.”는 전제조건에서, 군청측이 소작인 대표(서면농민대회)의 요구를 기초로 작성한 9개 요구조건을 수용하였다. 요구조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소작료는 그 품질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 총수확의 4할 이내로 할 일, 지세 및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일, 두량(斗量)은 공평히 하여 4각두(四角斗)를 사용치 말 일, 소작료 납입·운반은 2리 이내로 할 일, 소작권은 합부로 이동치 말 일 등이었다.⁴⁾

이때부터 각 면의 농민대회는 상당히 희망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지주들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23년 2월 11일 순천의 농민대회 대표 68명이 모여 순천농민대회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이 같은 투쟁을 전군적 규모로 조직화하기 위해서였다.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이영민·박병두·이창수·김기수·김영숙 등 혁신청년들과 순천군 소작농민, 권업과장(군수 대리), 경찰서장, 경부, 고등계·사법계 순사, 면장·면직원 등 각급 기관장과 다수의 지방유지가 출석한 가운데 창립되었다.⁵⁾

조직결성 이후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각 면 농민대회 대표 63명)와 상무집행위원회(서무부, 경리부, 지육부, 조사부)를 두었다. 그리고 군단위 규모의 분쟁 조정, 각 면

1) 『조선일보』 1926. 4. 7.

2) 『동아일보』 1922. 12. 18·1922. 12. 26· 『조선일보』 1922. 12. 21.

3) 『조선일보』 1923. 1. 11.

4) 『동아일보』 1923. 1. 27.

5) 『동아일보』 1923. 2. 26· 『조선일보』 1923. 2. 19.

순회강연, 농가경제상황·소작관련문제 조사, 조선어 신문의 지방지국을 매개로 한 언론투쟁,⁶⁾ 중앙·도단위 농민조직과 연계활동, 군청이나 군경찰과의 연락 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각 면민대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평의원, 구역위원 등의 조직틀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면리단위의 소작관계 개선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면단위 농민대회는 현장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를 단위(20~30명)로 구(區)를 조직하고, 각 구에 1~2명의 구대표(위원)를 두었다. 이후에 전개된 공동경작투쟁이나 소작료 불납투쟁은 대부분 구를 단위로 이루어졌다. 각급 조직의 활동비용은, 초기에는 주로 지도급 활동가들의 의연금에 의존하였으나, 조직의 기틀이 잡히는 1924년경부터는 회비를 징수하여 충당하였다.⁷⁾

6) 『동아일보』 1925. 12. 6. 이영민, 이창수, 김기수 등 순천농민대회연합회의 주요 간부는 대부분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시대일보사의 지국장 또는 기자들이었다. 이들은 1925년 12월 3일 순천기자단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 지도하였다.

7) 『조선일보』 1923. 3. 24 · 『동아일보』 1923. 5. 16 · 1925. 4. 10.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각 면 농민대회를 갑(6원), 을(5원), 병(3원), 정(2원)으로 나누어 회비를 차등 징수하였다.